

말씀과 기도로 열매맺는삶

(2019.2.18. ~ 2.24.)

이번 주 읽을 본문	가정	출 1 - 7	눅 4 - 10
	개인	욘 18 - 24	고전 5 - 11
이번 주 암송구절	바른 신학 - 다섯 오직(2) - 오직 은혜(2)		
	<p>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p>		



고린도전서 5장 / 음행 소식

개 요

1-8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9-13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편지한 목적 중 하나는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린도교회에는 심각한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1절). 하지만 교회는 교만하여 이 일을 경솔히 여기고 자기 자랑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2,6절). 바울은 함께 몸 된 이 교회를 두고 볼 수 없어 간섭합니다(3절). 그러나 음행한 자가 육신은 비록 상하더라도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4,5절). 교회는 이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6-8절). 물론 교회는 세상 안에 삽니다(10절). 오히려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음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향한 바울의 태도는 단호합니다(9-11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12,13절).

이 단락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죄에 대한 단호한 대처, 그 중에서도 음행의 문제에 대한 분명한 선을 긋는 일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서 형제가 구원 받기를 바라며, 회복을 기대합니다. 형제를 구원으로 이끌어 줄 마음과 생각으로 대처합니다. 우리의 고민은 이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말씀의 기준으로 지키되, 어떻게 하면 형제를 구원의 은혜 안에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은 모호함이 아니라 사랑의 율법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붙들어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6장 / 그리스도의 지체

개요

1-11 다툼이 있으면

12-20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바울은 고린도교회 안에 생긴 다툼의 문제를 함께 다룹니다. 교회 안에서 생긴 문제로 교회 밖 법정으로 이어졌습니다(1절). 장차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세상이 성도를 심판하는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2-5절). 게다가 그들은 형제입니다(6,8절). 피해자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나으며, 가해자는 모든 불의를 그쳐야 합니다(7,8-10절). 성도는 그 모든 불의에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11절). 다시 음행 문제로 돌아와, 바울은 성도가 모든 것에 자유하나 다 유익하지는 않음을 기억하며, 그들의 음행은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며 죄임을 분명히 합니다(12-18절).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입니다(15,19절). 그러므로 자유를 얻은 몸의 바른 사용법은 하나님께 영광 돌림입니다(20절).

성경은 내가 내 몸의 주인이며, 내 자유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몸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몸을 함부로 쓸 수 없다고 합니다. 형제를 대하는 태도 역시 주님의 주권 아래서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스려주시옵소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옵소서.

고린도전서 7장 / 바울의 답변1: 결혼에 대해**개요**

1-24 결혼에 대하여

25-40 처녀와 과부에게

바울은 고린도교회의 질문에 답합니다. 먼저 성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절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결혼 관계 안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1,2절). 이것은 당시 사회 관습처럼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 뿐만 아니라, 동등한 관계로서 서로에 대한 의무를 지는 일입니다(3절). 이 의무는 몸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면서, 동시에 시험을 피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4,5절). 그러나 이것은 명령은 아니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을 댈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6,7절). 그러나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고 서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유익합니다(8-11절). 여기서 다양한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확장되는데, 그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12-24절). 처녀의 경우는 초대교회에 불어 닥칠 환난을 생각하면 홀로 주를 섬김이 좋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25-35절). 그러나 결혼은 죄가 아닙니다(36절). 그럼에도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들면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37절). 남편이 죽으면 재혼할 수 있지만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39,40절). 7장을 읽으면 결혼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나, 초점은 결혼의 유무 자체가 아니라 결혼이 신앙에 유익한지를 염두하여 다양한 상황과 사람에 따라 제시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특수한 설명을 일반적인 가르침으로 결론지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연약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고린도전서 8장 / 바울의 답변2-1: 우상 제물에 대해**개요**

1-13 우상에게 바친 제물

바울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에 대한 질문에 답합니다. 우상은 허상이며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 뿐입니다(4-6절). 그러나 이 지식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로 인해 흔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7절). 음식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를 생각해야 합니다(8-12절).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아예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는 게 낫겠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1-3절).

내가 가진 지식으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약한 형제 앞에서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비웃으면서 자기 기준에 끌어맞추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시며 양육하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 일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말씀을 곱씹어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타내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 앞섭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지식은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고린도전서 9장 / 바울의 답변2-2: 권리에 대해**개요**

1-18 사도의 권리

19-27 그러나 종으로

바울은 형제를 위해 자기 권리를 축소합니다(고전 12:13). 9장에서는 사도의 권리로 이야기를 확장시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교회에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1-12절). 그렇지만 바울은 그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12-18절).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12절). 또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입니다(19절). 그 모든 기준과 근거는 복음입니다(20-23절). 이를 위해 자신을 점검합니다(24-27절).

권리를 누리는 일이 현대 사회에서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권리를 누리기 위해 계속해서 그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러나 신자의 권리는 오히려 복음을 위해 축소하기도 합니다. 신자는 더 많이 또는 다 누리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절제하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다만 율법주의도 금욕주의도 아닌 복음주의로 사랑주의로 인한 절제가 있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 바울의 답변 2-3: 하나님 영광을 위해**개요**

- 1-12 이스라엘의 본보기
- 13-22 우상숭배를 피하라
- 23-33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은 은혜로 애굽을 나왔지만, 이후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여 넘어지고 말았습니다(1-5절). 이들은 교회의 본보기입니다(6-11절).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시험을 절제함으로 이기며, 하나님의 신실함 안에 살아야 합니다(12,13절). 그러므로 우상 제물을 대할 때, 어떤 지식과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고전 8:1) 이론과 실체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찬에서 먹는 일이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우상 제물을 먹는 일은 우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14-22절). 그러므로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것이 유익한지, 덕을 세우는지 이 두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23절). 유익은 남을 위한 유익입니다(24-33절). 이 두 기준은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31절). 사도 바울은 그런 정신, 그런 삶을 본 받으라고 권면합니다(고전 11:1).

하나님의 영광은 천상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형제를 사랑하여 자기를 절제함으로 사는 삶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최우선 기준으로, 그리고 형제를 다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일이 이 땅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한 방법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우리 삶을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사랑으로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고린도전서 11장 / 바울의 답변 2-4: 절제하는 삶의 실천

개요

- 1 그리스도를 본 받는 자
 2-16 칭찬: 여자의 머리에 대해
 17-34 꾸중: 성만찬에 대해

바울은 그가 가르친 전통을 따르는 고린도교회를 칭찬합니다(2절). 그 전통은 질서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그리스도-남자-여자에 대한 질서입니다(3절). 이 질서를 따라,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여자의 머리를 가리도록 하였고, 또 머리를 길렀습니다(4-16절). 남자의 긴 머리, 여자의 짧은 머리는 세상 관습을 반대하는 자유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교회는 이 전통을 지키는 방식으로 당시 문화를 통해 기독교 신앙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교회는 칭찬과 동시에 꾸중을 들었습니다(17,22절). 유익한 모임이 해로움이 되었는데, 그들은 파당을 지었고(18,19절), 무질서했습니다(20-22절). 본래 성찬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으로, 주의 죽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23-26절). 그러므로 죄를 짓고 성찬에 무분별하게 참여할 수 없으며, 주님이 죽으셔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으니, 이 문제는 당장 바로 잡아야 할 일이었습니다(27-34절).

신자는 자아 성취를 목적으로 두고 살지 않습니다. 소위 내 스타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개성을 말소하려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야 할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질서가 그 안에 살아 숨쉬어야 합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옵소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주님이 주신 자유를 질서 있게 누리는 그런 교회되게 하옵소서.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

❖ 순모임

세 가지 삶의 방식(2)

문1. 누가복음 18장 9-14절을 읽고,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의 신앙에 대해 말해보세요. 바리새인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그 이유도 말해주세요.

문2.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의로움은 무엇인가요?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려고 하나요?

답1. 바리새인은 좋은 사람이다. 그가 가진 것의 십분의 일의 헌금한다는 것은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가 간음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성실한 남편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기도한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감사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나머지는 전부 자신에 대한 기도이다. 하나님 중심처럼 보이지만 전적으로 자기 중심적이다. 바리새인의 예배와 기도는 철저하게 자신을 향하고 있다.

답2. 의에 대한 바리새인의 접근법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1. 외형주의

바리새인의 죄와 미덕에 대한 이해는 외형적이었다.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규칙들의 위반 또는 준수에 집중한다.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거나 성품을 살피지 않는다. 죄를 개인의 행동으로 이해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강탈하지 않는다. 나는 간음하지 않는다. 나는 속이지 않는다. 나는 구제한다. 나는 금식한다. 나는 종교적 의무를 지킨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 내가 더 인내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더 온유한 사람이 됨에 감사합니다. 내가 전에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이제 사랑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상황이 안 좋을 때조차도 나의 기쁨과 평화를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은 외적인 행위에 모든 관심이 쏠려 규칙을 지키고 어기는 것에 집중한다.

2. 비교의식

바리새인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나는 이만큼 더 낫습니다"이다. 또한 그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9절)이라고 말한다. 바리새인이 자신을 강도, 악인, 간음자와 비교한다.

또한 그는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합니다"(12절)라고 한다. 성경 어디에도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가 선택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 취향 또는 문화적 관습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으로 느끼고 싶어한다.

문3. 세리는 자신을 가리켜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a sinner)라고 하지 않고, 내가 바로 그 죄인(the sinner)라고 고백합니다. 세리가 고백하는 말에서 나타난 자기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는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참고: 토마스 왓슨, 진정한 회개의 여섯 가지 특징

1) 죄를 봄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시 51:3)

2) 죄를 슬퍼함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시 51:4)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한 슬픔을 수반한다. 죄가 하나님을 비참하게 하였음에 대한 애통을 포함한다. 가짜 회개는 죄의 결과에 대한 슬픔이며 자신을 비참하게 한 일에 대한 것이다. 자기 연민은 회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다.

3) 죄를 고백함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시 51:4)

진정한 회개는 핑계를 대지 않는다. 책임 전가를 하지 않는다.

4) 죄를 부끄러워함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시 51:5)

진정한 회개는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가 달라진다. 세리처럼, 자신을 '바로 그 죄인'이라고 말하게 한다.

5) 죄를 미워함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시 51:4)

죄에 대한 진정한 슬픔이 있다면, 죄 그 자체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6) 죄에 등 돌림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시 51:12)

앞의 다섯 가지 요소들이 있다면, 이 순서에서 당신은 죄를 버리게 될 것이다. 당신에 대한 죄의 권능이 약해질 것이다. 최소한 당신은 죄로부터 떠나는 데 진보를 이룰 것이다.

4. 예수님은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고' 집에 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본문은 칭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나요?

답3. 세리는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세리는 자신을 죄에 빠진 사람으로 이해한다. 그 세리는 자비를 간구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란다.

답4. 좋은 사람인 바리새인이 있고, 나쁜 사람인 세리가 있다. 세리는 제국의 부역자였고, 폭력배였고, 갈취범이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듣고 예수님은 그 나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신다.

바리새인은 선한 행위로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했다. 그는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고 있지만, 철저히 외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자신은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규칙을 지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13절) 하나님의 자비에 완전히 의존한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게 여김을 받음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확실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순종한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 수준과 마음을 따라서 사랑하고 용납하시는 것처럼 행동한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좋은 자아상을 만들려는 욕망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 그럴 때 우리 의로운 행동은 죄가 된다. 이러한 방식들은 다음과 같다.

- 만일 우리가 꽤 많은 시간을 비참과 고통 가운데 보내야 죄나 실패에 대하여 용서받은 느낌이 든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의 근거를 스스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자책과 비참에 두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교만하거나 거칠게 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의 근거를 스스로 성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도덕 기준에 두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 만일 우리가 패배자처럼 느끼며 낮은 자존감을 가졌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거를 성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도덕 기준에 두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문5. 만일 우리가 오직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면 도대체 순종과 회개의 삶을 사는 동기부여는 어디에서 오나요?

함께 기도하기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공홀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자기 의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그 삶 속에서 순종과 회개가 있게 하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답5. 만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안다면(롬 8:1), 당신이 순종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모든 동기부여를 가진 것이다.

- 우리는 순종하며 회개하는 삶을 산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기뻐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복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거워하시게 하기 원하는 열망이 커진다.
- 우리는 순종하며 회개하는 삶을 산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높이며 닮아가기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존경하고 공경하는 대상을 모방하고 싶은 인간의 깊은 본능이 있다. 예를 들어 위대한 사람을 공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들의 형상을 만든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을 모방하도록 독려한다. 경건한 삶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 경의를 표하는 방법 중 하나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
- 우리는 순종하며 회개하는 삶을 산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그렇게 하는 방법 중 하나다.
- 예수님은 십과 확신을 우리 양심에 주시는 분이다. 그분의 구원은 무한한 가치가 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죄를 위해 지불된 몸뚱이이다(막 10:45).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피다(행 20:28). 그 피의 가치를 생각해 보라.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큰 죄는 없다. 치료되지 못할 정도의 상함은 없다.